

【특집 ·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위한 국어 교육】

중등학교 문법 교육의 현황과 문제

- 국어 생활에 유용한 문법 교육이 필요하다 -

이관규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머리말: 국어 교육과 문법 교육

국어 교육은 언어 교육인가? 국어가 언어라는 점에서 보면 분명히 그렇다. 의사소통 매개체로서 언어는 사용 기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어도 표현과 이해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어 교육 역시 언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어 교육은 국어 교육인가? 언어에는 여러 종류의 개별 언어가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그렇지 않다. 개별 언어로서의 국어는 국어를 사용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사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소통 매개체 그 이상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어 교육에 있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영역은 국어를 사용하는 분야들이다. 국어가 매개체가 된 표현과 이해의 분야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문법 영역은 국어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섯 영역과 차별성을 가진다. 국어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국어 교육의 다른 영역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어 교육에서 문법 영역은 국어 지식 영역으로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영역에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문법 영역에 대한 교수-학

습이 국어 교육에서 기초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은 필수불가결하다는 말이다. 문제는 현행 중등학교에서 문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언어 교육으로서 국어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언어 사용 기능과 능력의 신장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현행 국어 교육에서는 이 점을 극대화하여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문학 영역 역시 예술적 영역으로서 표현과 이해의 결정판인 듯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문법 영역은 국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심지어 문법 교육 불필요론 내지 최소화론 주장이 나오는 원인은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현행 제7차 교육 과정 문법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하면 문법 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특히 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한다.¹⁾

2. 중등학교 문법 교육의 위상

먼저 중등학교의 문법 영역이 어느 정도 위상을 갖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 어느 정도의 위상이 바람직한지도 알아보도록 한다.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와 같은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현장 국어 교사들이 느끼는 문법 교육의 현황을 보이려고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문법 교육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 우리의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단계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1) 필자는 2004년 7월 21일과 8월 9일에 1정 중등 교사 연수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 116명과 중학교 국어 교사 7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평균 5년 정도의 경력인 국어 교사들이기 때문에 실제 국어 교육의 현황을 잘 알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들 국어 교사들의 설문 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중등학교 문법 교육의 현황과 문제를 알아보도록 한다. 더불어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된 자료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영역으로 거의 모든 교사들이 문학 분야를 최우선으로 꼽는 데서도 알 수 있다(81.0%). 독서 분야를 가장 강조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리 많지 않다(16.4%). 독서 같은 경우는 각종 교재도 그렇고 당장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지를 읽고 이해해야 하니, 그야말로 기본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문학 분야를 국어과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이유는 저간의 각종 시험에서 문학 관련 내용이 거의 절대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수능’ 언어 영역의 분야를 문학과 비문학으로 흔히 나누는 데서도 그런 사정을 짐작해 볼 수 있다.<이상 고-질문 1 참조>.

고등학교에서의 문법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하다’(58.6%), ‘아주 필요하다’(14.7%), ‘보통이다’(12.1%)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개 국어 교사들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이상 고-질문 2 참조>. 그러나 국어 교육에서 문법 영역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응답을 하고 있다. 전체 10% 내외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절반 정도 되고(47.4%), 5% 내외라고 보는 교사들도 많은 편이다(28.4%). 15% 내외라고 생각하는 교사도 있긴 하지만(18.1%), 전반적으로 볼 때 문법 교육의 현재 위상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상 고-질문 3 참조>.

이에 비하여 국어 교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어과 교육에서의 문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10% 내외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가장 많고(37.1%), 그에 못지않게 15% 내외이어야 한다거나, 20% 내외는 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많이 있는 것(각각 24.1%, 21.6%)을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문법 교육이 현재보다는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국어 교사들이 생각하는 문법 교육은 15%를 채 넘지 않아 보인다.<이상 고-질문4 참조>.

결국 국어과 교육 전체에서 문법 교육의 현재 위상은 10%도 되지 않고 있으며, 교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문법 교육 위상도 15%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고등학교 국어 관련 과목으로 심화 선택 과목을 살펴보면,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17)은 서울시 교육청 산하 일반계 고등학교

에서 선택한 심화 선택 과목들을 보인 것으로, 196개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영역별 심화 과목을 선택한 학교의 숫자와 그 백분율을 보인 것이다.

(1) 심화 선택 과목의 학교수별/단위수별 분포 -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ㄱ. 심화 선택 과목의 학교수별 분포

과목	문학	독서	작문	화법	문법	합계
학교수	185	172	171	85	102	715
백분율	25.9%	24.0%	23.9%	11.9%	14.3%	100%

ㄴ. 심화 선택 과목의 단위수별 분포

과목(단위)	문학(8)	독서(8)	작문(8)	화법(4)	문법(4)	합계
단위수	1480	1376	1368	340	408	4972
백분율	29.8%	27.7%	27.5%	6.8%	8.2%	100.0%

서울시 교육청 산하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문학(185개), 독서(172개), 작문(171개)을 선택하고 있고, 문법(102개)은 반 정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영역을 백분율로 보았을 때도, 문학, 독서, 작문의 중요도는 비슷하게 높으나(각 25.9%, 24.0%, 23.9%), 문법은 전체 14.3%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으로 나온 수치로 단지 학교 숫자만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실제로는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하느냐 하는 이수 단위가 중요하다. 앞의 세 영역은 이수 단위가 각 8단위를 차지하고 있고, 문법과 화법은 각 4단위를 갖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실제적인 문법 영역의 위상은 더 낮아진다. (1ㄴ)에서 보듯이 문법 영역은 그 위상이 8.2%밖에 되지 않는다.²⁾ 물론 이 수치도 실제 고교 수업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확보되

2) (1)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용으로 각 학교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 수치는 필자가 2000년에 조사한 제6차 교육 과정 때의 통계 수치와 차이를 보인다. 즉 6차 때는 학교수별 15.0%, 단위수별 9.6%의 백분율을 보였었는데, 지금 7차 때는 각각 14.3%, 8.2%를 보여, 문법 영역의 위상이 약간 내려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7차 때는 문법 관련 내용이 많이 들어간 ‘국어생활’이라는 일반 선택 과목이 신설되었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이것만 갖고 단순

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간표 상에는 있되 실제 수업은 다르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보충 수업 등을 통해서 특히 문학 영역 수업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³⁾

한편 중학교의 국어과 수업에서는 양상이 약간 다르다. 먼저 가장 강조하는 분야가 문학이 아닌 독서라고 국어 교사들은 보고 있다(50.0%). 문학도 물론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47.4%), 고등학교 국어 교육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문학을 강조한다고 보는 견해와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이는 중학교에는 국정 교과서로 ‘국어’, ‘생활 국어’만 있고, 세부적인 심화 선택 과목이 없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고등학교에서처럼 특정 분야, 즉 문학을 강조하는 ‘대수능’과 같은 시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상 중-질문 1 참조>.

문법 교육에 대해서 중학교 국어 교사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조금 필요하다’(54.0%), ‘아주 필요하다’(27.6%), ‘보통이다’(17.1%)로 나타나는데, 대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주 필요하다’(27.6%)가 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14.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 교사들이 문법 교육의 필요성을 보다 더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이상 중-질문 2 참조>. 그러나 고등학교에서처럼 중학교에서도 교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문법 교육과 현실적 국어과 교육에서의 문법 교육 간의 위상은 차이가 있다. 현재 문법 교육이 국어과 교육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10% 내외라고 답한 교사가 43.4%로 제일 많고, 15% 내외라고 보는 교사가 15.8%, 20% 내외라고 보는 교사가 15.8%에 달한다. 계산해 보면, 13% 정도의 위상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관규(2000) 참조.

- 3) 현행 제7차 교육 과정 시기에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선택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내용만 제시하지 일률적으로 특정한 과목을 교수 학습하진 않는다. (2ㄴ)의 단위수는 단순히 각 영역 과목의 단위수를 계산하여 제시한 것으로, 개략적인 현황이다. 참고로, 6차 때는 독서와 작문이 각 4단위, 6단위였는데, 현행 7차 때는 각 8단위로 상향조정되었다. 상대적으로 사용 기능 영역에 대한 가중치가 올라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문법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상 중-질문 3 참조>. 물론 중학교 국어 교사들이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문법 영역의 위상은 이보다 높다. 15% 내외라고 보는 교사가 36.8%, 20% 내외라고 보는 교사가 34.2%나 되고 있다. 10% 내외라고 답한 교사는 18.4%, 25% 내외라고 응답한 교사는 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계산해 보면 약 18% 정도의 위상을 문법 영역이 차지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이상 중-질문 4 참조>.

요컨대, 국어 교사들이 보는 문법 영역의 현재 위상은 고등학교에서는 10%가 채 되지 않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13% 정도이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문법 영역의 위상이 8.2%밖에 되지 않는 것도 이와 상통한다 하겠다. 물론 국어 교사들이 느끼는 문법 영역의 위상은 이보다는 조금 높아서, 고등학교는 15%, 중학교는 18% 정도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문법 교육의 현실과 이상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의 문법 교육이 고등학교에서의 문법 교육보다 중요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대학 입시 탓이 제일 크다고 판단된다. 즉 문법 영역의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음으로 해서 고등학교 국어과 수업에서 문법 교육을 경시하고 있다는 말이다. 본래 인지 능력 발달 단계에 있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식 영역의 내용을 더 많이 학습한다고 한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식 영역인 문법의 교수 학습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현행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법 교육은 인지 발달 단계를 거슬리는 비교육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3. 중등학교 문법 교육의 문제 및 극복 방안

중등학교에서 문법 교육의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여기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1. 문법 교육의 문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에 있어서 현행 문법 교육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문법 과목 자체가 지식 영역으로 딱딱하기 때문이라는 것과, 문법 교육이 실생활에 별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각각 29.3%, 26.3%). 사실 국어 교과서나 문법 교과서에 제시된 문법 내용이 이론 문법 내용을 요약해서 넣어 둔 것이라는 인식이 많다. 교수 학습이라는 차원에서 제시되기보다는 일정한 문법 내용만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하는 게 저간의 인식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단지 지식 영역으로만 문법이 인식되었고, 깊은 이해보다는 알팍한 암기용으로 문법 내용이 제시된 감도 없지 않다. 딱딱하다는 것과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바로 그런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문법 교육의 방법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19.0%). 대개 문법 교수법이라 하면 연역식 방법만을 떠올린다. 문법이 지식 분야로서 암기의 대상이기 때문에 교사의 설명이 중요하다는 일반적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제7차 교육 과정의 문법 영역에서는 명칭 자체를 ‘국어 지식’으로 바꾸고 문법 지식의 교수 학습 방법으로 탐구 학습을 제시하고 있다. 탐구 학습은 일종의 귀납식 교수 학습 방법으로, 또 학습자 중심의 발견 학습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도는 있으나 그것이 교사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난점이다. 고등학교 문법 교육의 문제로 또 지적된 것은 상급 학교 입시에서 문법 영역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16.4%).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법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도 학생도 가르치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현행 국어 교육의 목표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향상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법 교육 약화의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5.6%), 세 번째 내용과 관련하여 교사에 대한 연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소수지만 있다(3.4%).<이상 고-질문 5 참조>

문법 교육의 문제로 지적된 이런 것들은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실생

활에 별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27.0%), '문법 과목 자체가 지식 영역으로 딱딱하다'(25.6%), '문법 교육의 방법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21.1%)는 응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등학교와 차이가 거의 없다. 실생활과 관계 없는 과목, 딱딱한 과목이라는 인식과 문법 교수법이 교사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인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급 학교 입시에서 소홀히 적용되고 있다'는 견해는 고등학교의 경우보다 적는데(각 13.8%, 16.4%), 이는 중학생들이 입시 부담이 고등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걸 보여 준다. '국어 교육의 목표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신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견해는 고등학교보다 훨씬 높다(각 10.5%, 5.6%). 입시에 대한 낮은 부담, 국어 교육관의 차이로 인해서 중학교에서 문법 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 인식이 소수지만 있다는 것이다.<이상 중-질문5 참조>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딱딱한 문법, 실생활과 동떨어진 문법이 국어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어떻게 문법을 가르칠 것인지 하는 문법 교수법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 이런 건 현장 교사들의 문제냐?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사실 학교 문법이 이론 문법의 축소판이 아니라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는 현실이 아닌가? 살아 있는 문법, 실생활에 부합하는 문법은 과연 무엇인가? 필자가 아는 한 그런 연구는 거의 안 되어 있다. 문법 교수법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 과연 이에 대한 연구는 얼마나 되어 있는가? 역시 거의 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별로 없는데, 어찌 교육 현장에만 탓을 돌릴 수 있겠는가?

3.2. 문법 교육 문제의 극복 방안

앞에서 문법 교육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이미 그 극복 방안이 나온 셈이긴 하지만, 문법 교육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방안이 무엇인지 국어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고등학교 국어 교사들의 경우, '실생활에 필요한 문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46.1%)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이는 문법서에서 잠자고 있는 문법이 아니라 실제 국어 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문법이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걸 보여 준다 하겠다. ‘문법 교육의 방법에 대한 연구 및 보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37.5%)는 의견도 매우 많이 나왔다. 문법 교수법에 대한 연구도 그렇고 보급도 그렇고 매우 시급함을 보여 준다. ‘상급 학교 입시 문제에 포함되어야 한다’(8.2%), ‘문법 능력의 평가 방법 연구 및 보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6.0%)는 의견도 주목된다.

이런 주장은 중학교 문법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실생활에 필요한 문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45.4%), ‘문법 교육의 방법에 대한 연구 및 보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35.6%)는 견해가 대다수를 이루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소수만 응답하고 있다. 결국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문법 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가 지적된 셈이다. 실용적 문법, 문법 교수법의 연구와 보급이 바로 그것이다.<이상 중·고-질문 6>

이와 같은 문법 교육 문제의 극복 방안은 국어 교사들이 자유롭게 제시한 의견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중·고-질문 7 참조>. 아래에서는 국어 교사들이 낸 의견을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이고자 한다. 먼저 고등학교 국어 교사들의 의견을 (2)를 통해서 알아보자.

(2) 고등학교 국어 교사들의 문법 교육에 대한 의견들

- ㄱ. · 실생활과 관련된 체계적, 실용적 문법 내용 필요 → 예) 표준어 발음 교육 내용 제시
 - 실제 생활에서 쓰고 있는 것과 문법 내용과 동떨어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문법 교육은 실생활과 일치시켜야 의미 있는 교과가 되지 않을까요.
- ㄴ. · 이론 중심의 교육이란 고정 관념이 크게 작용해서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실생활에 필요한 국어 발음과 어문 규범을 중심으로 하는 문법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 문법 규범에서 실생활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정 과정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어 현실과의 괴리가 큰 것 같습니다.
- ㄷ. · 문법 교육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하며 (중략) 다양한 수업 모형 및 수업 자료 제작
 - 교사들에 대한 연수나 자료 제공이 활발해졌으면 → 특히 개정이나 변경 사

항 발생 시

- 교수 방법 다양화, 교사 연수(외국의 문법 교육, 새로운 이론 등)
- ㄹ. · 실생활에 필요한 핵심적인 문법을 공동 기본 과목인 국어 교과서에 게재했으면 좋겠다. 실생활과 관련하여 교재 개발이 되었으면 (후략)
- 7차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 부분의 일관성 등이 의심스럽고 가르치기 매우 어려움.
- ㄱ. · 학생들이 문법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입시에 별로 반영되지 않아 문법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실생활과 접목된 교육 과정 필요 (후략)
- ㄴ. · 문법 교육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다른 영역들과 통합해서 이루어져야 할 듯 (후략)
- 정확한 발음, 쓰기에 도움이 되도록 실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나다.
- ㄷ. · 화용론 위주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화법 위주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 실생활에 필요한 문장과 이야기 중심 단원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법이나 규정 중심으로 단원이 편성되어 아이들이 흥미를 잃는 것 같습니다.

(2ㄱ)에서는 문법 교육이 실생활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사항’, ‘실생활에 필요한 어휘 및 발음 중심’, ‘언어 실생활에 탄력적으로 반영’, ‘쉽고 기본적인 내용,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화용론 위주의 교육’, ‘실생활과 일치시켜야’, ‘실생활과 관련된 체계적, 실용적 문법’ 등등 의견이 제시됐다. 문법 교육에 대하여 느끼는 생각을 자유롭게 적게 했는데도, 이런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문법 교육을 주장한 의견이 반 이상이 나왔다. (2ㄴ)도 실생활과 관련된 진술인데, 특히 어문 규범과 관련하여 제시된 것들이다. ‘실생활에 필요한 어문 규범을 중심으로’, ‘비현실적인 맞춤법 규정은 언중들의 연습에 맞게 융통성 있게 고치고’, ‘문법 규범에서 실생활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생활에 맞지 않게 규정된 것이 많아서’ 등등 의견이 더 나왔는데, 결국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과 같은 어문 규범 내용이 실생활적

인 문법 교육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법 교육에 대하여 느끼는 생각을 자유롭게 적게 했는데도, 이와 같이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문법 교육을 주장한 의견이 매우 많이 나왔다.

실생활에 유용한 문법 교육 의견 다음으로 많이 나온 자유 의견은 (2ㄷ)에 제시된 것처럼 이것을 잘 가르치기 위한 교수법에 대한 요구이다. 즉 문법 교육 방법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학생들이 문법 지식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덜 느낄 수 있는 교수-학습법 및 교재 개발’, ‘다양한 수업 모형 및 수업 자료 제작’,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 ‘교사들에 대한 연수나 자료 제공’, ‘교수 방법 다양화, 교사 연수’ 등등. 문법 교수법은 개발되기도 해야 하지만 교사들에게 연수도 잘 되어야 한다. 교사는 자유자재로 다양한 수업 모형을 사용할 줄 알아야, 궁극적으로 문법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연구가 거의 되지 않고, 또한 연구 결과에 대한 교사들 연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⁴⁾

실생활과 관련한 문법 교육의 실현은 결국 교과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2ㄷ)에서는 바로 이 실생활적인 문법 내용이 국어 및 문법 교과서에 투영되기를 바라는 의견을 담고 있다. ‘실생활과 관련하여 교재 개발이 되었으면’, ‘실생활에 필요한 문장 및 이야기 중심 단원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의 언어 사용 기능 측면에서 실제적인 문법 교재로 수업을 진행할 필요’ 등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문법 내용적인 측면에서 ‘문법 부분의 일관성 등이 의심스럽고 가르치기 매우 어렵다’라고 지적한 의견도 있다. 결국 고등학교 국어 및 문법 교과서는 그 내용과 체계가 실용적이고 위계적이면서도 교수 학습을 고려해서 편찬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2ㄹ)에서는 문법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입시 문제로 문법 내용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교육 과정’에서부터 실용적인 문법

4) 중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연수는 교사 발령 4~5년 뒤에 이루어지는 1정 교사 연수가 거의 유일하다. 10년, 20년이 지난 뒤는 거의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육청에 따라서는 제도적으로 연수 기회를 직무 연수라 하여 더 많이 갖는 데도 있다.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2b)에서는 문법 교육이 다른 영역과 ‘통합’되어 교수 학습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문법 교육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다른 영역과 상호 공존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은 주목해 볼 만하다. 실제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문법 교육은 다른 영역, 특히 쓰기 영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학습자의 작문, 그리고 오류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문법 지식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2c)에서는 문법 교육이 문장이나 이야기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다는 견해를 보인 것이다. 이 내용 역시 실용적인 문법 교육을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인 것이라 하겠다.

중학교 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자유 기재 설문에서도 고등학교 교사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내용이 많았다. (3)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3) 중학교 국어 교사들의 문법 교육에 대한 의견들

- ㉠. · 실생활에 활용도 높은 것으로… 높임법, 문장 호응 등…
 -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길…
 - 문법 교육이 체계적, 논리적 사고력과 탐구력을 기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길…
- ㉡. · 변화된 문법에 대한 충분한 교사 연수가 있어야 한다.
 - 최근 동향에 맞는 문법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국어 시간 중 가장 딱딱하고 힘들어하는 과목 → 교수 방법?
 - 규범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보급, 연수가 필요
- ㉢. · 현행 교과서에서 너무 많은 문법 내용이 빠져 버린 듯한 생각이 듭니다.
 -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문법 내용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 초중고생의 차이를 생각해서 수준별로 위계가 있었으면 합니다.
- ㉣. · 다른 영역과 연계성 모색 필요성을 교사도 인식해야 한다.
 - 문법 교육이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되어 기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 · 학생들의 언어 파괴를 막는 기본틀로서의 문법 교육이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 학생들의 언어 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장치 필요

- 나. · 이야기나 화법, 바른 언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문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예문, 예시가 다양하고 재미있어서 교과서에서 풀어서 완전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3ㄱ)에 있는 것처럼 실용적인 문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들 수 있다. ‘실생활에 활용도 높은 것으로’, ‘현실과 실제 상황들을 수업에 다수 활용하길’, ‘올바른 언어 생활에 도움이 되길’ 등등 국어 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법 교육을 바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나)에서처럼 문법 교수법에 대한 연구나 보급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견해도 많다. ‘최근 동향에 맞는 문법 교육’, ‘충분한 교사 연수’, ‘정확한 규정과 보급, 연수’ 등 문법 교수법에 대한 연구 및 교사에 대한 연수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국어 교사들은 (3ㄷ)에서 보듯이 교과서 내의 문법 내용에 대해서 ‘너무 많은 문법 내용이 빠져 버린 듯한’ 느낌을 갖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문법 전체 내용의 체계성과 위계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가 통합적 내용 제시 및 교수법을 지향하여 편제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특히 ‘초·중·고생의 차이를 생각해서 수준별로 위계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은 문법 내용 및 제시가 중학교 국어 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 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전체적으로 위계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3ㄷ)에서 보듯이 문법 교육이 ‘다른 영역과 연계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면서 ‘... 기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것 역시 문법 교육과 다른 영역과의 통합 교육 필요성을 국어 교사들이 현장 경험 속에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 의식은 고등학교 교사들에게서도 나왔는데, 특히 문법과 쓰기 영역의 통합적 교수 학습 방법은 깊이 있게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ㄹ)은 문법 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한 것이라 본다. ‘언어 파괴를 막는 기본틀’, ‘학생들의 언어 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장

치'로서 문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오랫동안 문법 교육이 백안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바로 이런 오류 교정의 필요성 때문에 문법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게 되었다. 국어 교육에서도 문법 교육이 특히 쓰기와 같은 다른 분야와 통합 교수 학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여 문법 교육은 (3b)에서처럼 예문, 예시가 다양하고 재미있고, 이야기나 화법 등 바른 국어 생활에 도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국어 교사들은 문법 교육이 실생활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데 최우선의 문법 교육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법 교수법에 대한 연구와 보급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구 결과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라도 사용가능한 걸 제시해야 한다. 사실 중학교 국어 교사들 가운데 (3c)의 문법 내용의 체계성, 위계성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많았다. 교수 학습용 문법 내용의 선정과 배열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항이라 하겠다. 이것은 문법 교육과 다른 영역의 통합 교수 학습 방법이라는 차원에서도 깊이 있게 고구되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문법 교육의 지향점

지금까지 제7차 교육 과정 시기인 현재 2004년의 중등학교에서의 문법 교육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았다. '국어 생활에 유용한 문법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부제에서 밝혔듯이, 현재의 문법 교육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흐르고 있는지 보이곤 했다. 그건 선언적인 게 아니라 현장 국어 교사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일 뿐이다.

국어 교사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현재의 문법 교육의 위상은 전체 국어 교육에서 고등학교는 10%가 채 안 되고 중학교는 13%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8.2% 위상을 확

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어 교육 현장에 있는 국어 교사들이 바라는 문법 교육의 위상은 이보다는 높다. 국어과 교육 전체에서 고등학교 15%, 중학교 18% 정도는 문법 교육이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수치가 얼마만큼의 힘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 현재보다는 문법 교육이 전체 국어 교육에서 일정한 역할을 더 해 주어야 한다고 현장에서는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문법 교육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법 영역 자체가 지식 영역으로 너무 딱딱하다는 것, 문법 교육이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문법 교수법에 대해서 연구도 부족하고 보급도 잘 안 돼 있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은 쉽게 도출될 수 있다. 교수자나 학습자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문법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문법 내용이 그런 문법 내용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교실에서 교수 학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살아 있는 문법’, ‘실생활에 필요한 문법’이 특히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건 과연 무엇일까? 이런 문법의 내용은 어떻게 선정되어야 하며, 그것들은 교과서에 어떻게 배열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교수 학습할 때는 또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국어 교육이 바로 문법 교육이라고는 말하지 못할지라도, 문법 교육이 국어 교육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분명 문법 교육은 국어 교육이니까.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유용한 문법이 특히 중등학교 국어 교육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 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서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김광해(1997).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 서울대 출판부.

박영목 · 한철우 · 윤희원(2003). “(제2판) 국어교육학 개론”. 서울: 박이정.

이관규(2000). ‘학교 문법 교육의 현황.’ “새국어생활” 제10권 제2호.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이관규(2002). “(개정판) 학교 문법론”. 서울: 월인.

이관규 외 옮김(2004).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한국문화사.

Hagemann, Julie Ann(2003). *Teaching GRAMMAR*. Pearson Education, Inc.

<고- 설문 결과> 일반계 고등학교 국어 교사(116명)

질문 1	중등학교 국어과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영역은 어느 것인지요?					계
항목	문학	독서	작문	문법	화법	
숫자	94	19	1	1	1	116
비율	81.0	16.4	0.9	0.9	0.9	100

질문 2	중등학교 문법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
항목	아주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보통이다	조금 불필요하다	아주 불필요하다	
숫자	17	68	14	15	2	116
비율	14.7	58.6	12.1	12.9	1.7	100

질문 3	국어과 교육에서 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계
항목	5% 내외	10% 내외	15% 내외	20% 내외	25% 내외	
숫자	33	55	21	6	1	116
비율	28.4	47.4	18.1	5.2	0.9	100

질문 4	국어과 교육에서 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
항목	5% 내외	10% 내외	15% 내외	20% 내외	25% 내외	
숫자	16	43	28	25	4	116
비율	13.8	37.1	24.1	21.6	3.4	100

질문 5	현행 문법 교육의 문제점을 두 가지 지적해 주세요.						계
항목	국어 교육의 목표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법 과목 자체가 지식 영역으로 딱딱하기 때문이다.	문법 교육의 방법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실 생활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상급 학교 입시에서 소홀히 적용되고 있다.	교사에 대한 연수가 잘 되지 않아서 이	
숫자	13	68	44	61	38	8	232
비율	5.6	29.3	19.0	26.3	16.4	3.4	100

질문 6	문법 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들 수 있는 것을 두 가지 지적해 주세요.						계
항목	국어 교육 목표를 학문 중심으로 수정해야 한다.	문법 교육의 방법에 대한 연구 및 보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문법 능력의 평가 방법 연구 및 보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실 생활에 필요한 문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급 학교 입시 문 제에 포함 되어야 한다.	문법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숫자	1	87	14	107	19	4	232
비율	0.5	37.5	6.0	46.1	8.2	1.7	100

질문 7	문법 교육에 대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중- 설문 결과> 중학교 국어 교사 (76명)

질문 1	중등학교 국어과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영역은 어느 것이지요?					계
항목	문학	독서	작문	문법	화법	
숫자	36	38	1	0	1	76
비율	47.4	50.0	1.3	0	1.3	100

질문 2	중등학교 문법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
항목	아주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보통이다	조금 불필요하다	아주 불필요하다	
숫자	11	41	13	1	0	76
비율	27.6	54.0	17.1	1.3	0	100

질문 3	국어과 교육에서 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 는지요?						계
항목	5% 내외	10% 내외	15% 내외	20% 내외	25% 내외	30% 내외	
숫자	3	33	24	12	3	1	76
비율	4.0	43.4	31.6	15.8	3.9	1.3	100

질문 4	국어과 교육에서 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 하는지요?						계
항목	5% 내외	10% 내외	15% 내외	20% 내외	25% 내외	30% 내외	
숫자	0	14	28	26	5	3	76
비율	0	18.4	36.8	34.2	6.6	4.0	100

질문 5	현행 문법 교육의 문제점을 두 가지 지적해 주세요.						계
항목	국어 교육의 목표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법 과목 자체가 지식 영역으로 딱딱하기 때문이다.	문법 교육의 방법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실생활에 별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급 학교 입시에서 소홀히 이용되고 있다.	교사들에 대한 수가 적어서 이	
숫자	16	39	32	41	21	3	152
비율	10.5	25.6	21.1	27.0	13.8	2.0	100

질문 6	문법 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들 수 있는 것을 두 가지 지적해 주세요.						계
항목	국어 교육 목표를 학문 중심으로 수정해야 한다.	문법 교육의 방법에 대한 연구 및 보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문법 능력의 평가 방법 연구 및 보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실생활에 필요한 문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급 학교 입시 문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문법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숫자	2	54	19	68	4	4	152
비율	1.3	35.6	12.5	45.4	2.6	2.6	100

질문 7	문법 교육에 대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